

1시군-1생활인구 추진 박차

임실군, 전북자치도 주관 특화사업 공모 최종 선정… 도비 5000만원 확보

‘맹맹이와 함께하는 사계절 힐링캠프’ 테마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운영

1,500만 반려인의 성지이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 내년도 예산에 군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맹맹이와 함께하는 사계절 힐링캠프’라는 테마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를 겨냥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해 개장 예정인 오수국민여가캠핑장을 비롯한 의견관광지 등 관내 인프라를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임실N팻스타와 임실N치즈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 축제 기간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의 계절별 테마를 선정하여 임실군 사계절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197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잘 알려진 주인을 살린 의료용 개의 고장인 오수 지역에 의견관광지



임실군이 추진하는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조감도. (사진=임실군청 제공)

를 중심으로 ‘세계명진 테마랜드’를 18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공공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후모공원을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지원센터(오수반려누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캠핑장 등 시설을 구축 완료했다.

향후, 세계 100여개 나라의 유명한 애견 동물원과 애견 호텔도 추가로 건립하여 임실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민 군수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축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임실군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산업과 사계절 축제를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생활인구를 창출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미생물 활용 ‘미래 먹거리’ 공동 개발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JB푸드테크연구소 사업 참여… RISE 사업 일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가 주관하는 ‘JB푸드테크연구소’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전북대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식품 개발 및 산업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JB푸드테크연구소” 사업은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광표 교수 연구팀이 주관하며, 향후 5년간 전북 도내 미생물식품 기업, 특히 순창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펼치게 된다.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미생물 자원 수집과 분석, 데이터베이스(Library) 구축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진흥원은 전북대학교가 지역

의 대학과 기관들이 협력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대-지역기관 학연공동연구사업’에도 참여한다.

진흥원이 제안한 바이오매스 고영양 소재 산업화를 위한 RNA 저감과 세포분해 기술 개발' 과제가 채택됐으며, 해당 과제는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백상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순창군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100년 미래 먹거리, 먹는미생물 증가 육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에서 자생하는 우수한 토착 미생물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5만 주 이상의 미생물 균주를 확보하여 보존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식량문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 팬데믹, 국제적인 식량 안보 위기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창군은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 면적으로 고기능 영양식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도시형 식량 생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먹는미생물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RISE 사업 참여는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창이 가진 전통 발효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실력 세계가 인정

순창군,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 주관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 ‘우수’… 모든 항목서 기준 충족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2년 연속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분야 국제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로, 세계 각국의 분석기관들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주관기관이 같은 시료를 전 세계 참가 기관에 제공하고, 각 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면 표준 점수(score)를 기준으로 분석 능력을 판정하는 구조다. 이 점수가 ±2.0 이내일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올해는 전 세계 49개 기관이 참여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총 13개 성분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고,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 ‘우수’ 판정을 받았다.

센터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통해 매년 약 1,200건에 달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점수(GAP 인증 농산물)는 물론,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2년 연속 국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큰 성과”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순창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고위공직자

청렴 메시지 릴레이 추진

임실군이 기관장과 고위공직자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직원과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는 ‘고위공직자 청렴 메시지 릴레이’를 추진한다.

이번 청렴 메시지 릴레이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릴레이는 지난 2일 심 민 군수를 시작으로 부군수, 각 국장 등 고위공직자 4명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전 직원에게 청렴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군은 청렴 메시지 릴레이 외에도 공정자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는 최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본격

남원시, 남원교육지원청과 협약… 미래교육실 등 구성

남원시는 최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의 틀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남원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와 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에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은 △미래교육실 △놀이센터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 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이 공존하는 ‘함께 쓰

고 함께 누리는 열린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5월 22일 실시하게 될 지역에 착수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으며, 이날 협약을 통해 시설 건립에서 운영까지 기간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절차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을 중심으로 지리산 활력타운, 고향로대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동부권을 교육과 정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교육과 돌봄, 복지, 문화가 연결된 지역사회 통합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리라,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전국적인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 마무리 단계

공정률 95%… 7월 개소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거점,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현재 공정률은 98%로 개소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다.

동충무에 위치 센터는 남원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건강공간으로, 내부에는 체력단련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주민참여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며, 보건 전문 인력이 상주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남원시는 이를 위해 지역 건강자료 분석과 시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준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모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돌발해충 적기 방제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지·농경지 구분 없이 외래종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뽀레, 꽃매미 등의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미국산너뽀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은 현재 부화기를 맞이하여 복숭아, 배, 사과, 오미자 등 과수나무의 줄기와 잎을 빨아먹고 분변으로 그늘음형을 일으켜 작물의 생장을 불량하게 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유해 곤충들이다.

돌발 해충은 농경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까지 방제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5~6월은 겨울을 난 해충의 알의 부화시기로 이 맞춰 약제를 뿌려주면 더 큰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월~4월의 기상 상황

을 바탕으로 예측한 부화 시기와 방제 적기(부화 시기의 70%~80%)는 평년보다 5월~9일 빠른 5월 15~29일경이다.

남원시에서는 5월초에 방제약제를 688농가 570ha에 우선 공급, 방제약제는 사과 등 과수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주변 산간부에서도 발생하므로 같이 방제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또한 지역별 발생시기를 고려해 대상 작물과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독기술팀(063-620-8897)에서는 “부화기뿐 아니라 성충기·산란기 방제(9월 중순순)로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꾸준한 예방과 방제 교육을 실시해 돌발 해충에 의해 과수 재배 농업인의 피해가 경감되도록 지속적인 방제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 새 조성

남원시가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시내버스 회차지를 새롭게 조성했다.

우선 이번 회차지 조성으로 버스 경우 횡수가 크게 증가해 1일 평균 왕복 170회에 달하는 시내버스가 의료원을 경유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의료원 방문 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의료원 제3주차장 부근에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되어 의료원까지의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승강장 내 냉·난방이 가능해, 교통약자들에게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에는 한파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관에 ‘남원의료원’

남원시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 위탁기관으로 남원의료원을 선정했다.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관의 전문성, 재정 상태, 사업 수행 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남원의료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위탁기관으로 결정됐다.

남원시는 출산을 감소와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불편을 겪는 산모들에게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공약 사업으로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남원의료원과 6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구축 및 인력 채용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디지털리더스클럽

부트캠프 참가자 모집

남원시는 SW미래채움(전북)의 지역특화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리더스클럽의 부트캠프 참가자를 SW미래채움 장기교육과정 수료(또는 수료예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디지털리더스클럽은 SW개발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SW/IT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남원시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며, 부트캠프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군산대학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pygame을 활용한 게임 개발 △아두이노 기반 IoT 실습 등 풍성한 실습 교육에 참여하고 9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톤 대회에 참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게 이끌며 냉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